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일고찰*

- 중국의 대북 투자 정책을 중심으로 -

金 曠 根**

< 목 차 >

1. 서론: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2.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 및 경제협력
3.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 및 투자전략 평가
 - 3.1 목적별 대북 투자 현황
 - 3.2 중국 대북 투자 전략의 평가
4. 결론을 대신하여: 정책적 시사점

1. 서론: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최근 세계 경제 지도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WTO 전략과 함께 보다 개방화된 지역협력 체제(FTA) 구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FTA의 공백지대로 불릴 정도로 지역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정체되어 왔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 세계무역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011). 본 연구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김영근, “중국의 대북 투자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2008년)를 바탕으로 대폭 수정·가필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조교수.

1) 최영중, <동북아 경제협력의 이론과 추진방안>, 《국제정치연구》제10집 1호, 2007:

3개국(한국, 중국, 일본)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북아경제협력체를 형성하거나 한중일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는 물론 이거니와 안보협력 등을 통한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도 엄청난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추진에 있어서, 프로세스 중의 하나인 한중 FTA의 정체요인으로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산업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경제적 동기미흡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의 대북한 외교·통상정책은 동북아 경제협력 문제의 관건이 되어 왔다. 동북아경제협력체는 시장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역내의 정치·안보적 긴장관계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²⁾. 한국으로서는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 및 EU와의 FTA가 체결·발효된 현재, 주변국(특히 북한)과의 협력관계가 동반되었을 때 FTA의 경제적 실익의 극대화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 사업이란 도로, 교량, 항만, 통신 등의 인프라(SOC) 건설이나 에너지 자원의 공동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련의 동북아 경제협력 과정에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용·편익의 문제로 인해 민간자본도 적극적인 참여를 꺼려왔던 관계로 원활한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투자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의 사례연구는 매우 유용하다 하겠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제1의 교역

이창재 외, 《동북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진홍상·박승록, 《한중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05); 김홍중·손병해 공편,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 본 동북아경제협력》(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정인교 외,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요국 입장과 통합관련 이슈》(서울: 서울경제경영출판사, 2009), pp.86-87.;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지역통합의 꿈과 현실》(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200-203.

2) 중국은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로, 시장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역내의 정치·안보적 전략차원에서 한중 FTA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이장규·이인구·여지나·조현준,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년.

상대국으로 북한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 투자 정책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일고찰이다. 아울러, 중국의 대북투자 모델이 중국정부에 의한 '중앙집권화' 형태인가, 혹은 정부외 행위자가 주도하는 투자가 주류를 이루는 '非중앙집권화(decentralization) 형태(로의 이행과정)인가를 점검하고³⁾,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중국의 목적별 대북 투자동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있어 대부분을 문헌연구에 의존한다. 중국의 북한전문가와와의 인터뷰나 북한의 현지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중국내 조선족 신문과 중국과 북한의 통계자료, UNCTAD 등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자료 등을 수집·활용한다. 또한 한국의 통일부, 통계청, KOTRA 등의 정부기관 자료 분석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2.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 및 경제협력

중국은 2001년부터 대북 투자액을 늘려 왔으며, 특히 2005년 이후 투자 기업수, 투자액 측면에서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 <중국의 대북 투자 추이 총규모> 참조). 북한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도입 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와 투자 설명회 확대 등으로 중국의 대북 투자는 다시 증가하였다⁴⁾. 또한, 중국은 북한과 2005년 3월 '투자 장려 및 보호협정'을 체결함

3) 이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리버살과 램프톤의 저서에서 제시한 '분열된(단편화된) 구성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 모델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 대표적이다. Kenneth G. Lieberthal, "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 in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tics,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p.1-30.

4) 특히, 중국 기업의 대외직접투자액은 2006년도에 212억 달러(세계 17위 규모)에 달했으며, 대내직접투자액(695억 달러로 세계 5위 규모)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2006년도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중국통계

으로써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4년에 899만 달러, 2005년엔 1,437만 달러 수준에 달했으며, 이는 북한이 유치한 외국투자 총액 4,738만 달러의 30.3%를 차지하는 규모이다⁵⁾.

표1 <중국의 대북투자 추이 총규모>

(단위 : 천 달러)

연도	1990 년 이전	1991	1994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투자액	790	48	270	160	610	-	2,600	1,503	3,526	8,999	14,372	14,510	47,388
기업수	2	1	1	1	1	-	2	4	5	8	13	14	52
점유율 (%)	1.7	0.1	0.6	0.3	1.3		5.5	3.2	7.4	19.0	30.3	30.6	100

주: 점유율은 중국의 총 대북 투자액 중의 연도별 비율이다.

자료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중국상무연감》 각년호; 최수영《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p.49 및 정의준,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 분석>, 《동북아 경제이슈》 2007년 3월호, p.97, 중국상무부, “2006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자료(2012. 6월 검색) 참조.

중국은 북한에게 제1의 교역상대국이자 투자국으로 북한에 대한 가장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표 2 <북한의 대남·대중·대일 의존도 추이> 참조). 이는 ‘북·중관계의 긴밀화’라는 경향의 확대로 해석할 수 있다⁶⁾. 주요 근거로는 1) 1999년~2000년 이후 양국 고위급 지도자 교류의 재개·증가,

연감》 2007년.

- 5) 중국의 대북투자 추이의 총규모는 통계에 따라 상이하다. 표 1은 중국측의 자료이다. 이와 달리,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4년에 5,000만 달러, 2005년엔 1억 달러 수준에 달했으며, 이는 북한이 유치한 외국투자 총액 1억 1,300만 달러의 88%를 차지하는 규모로 산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액에 관한 분석으로는,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각년호, UN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 및 *World Investment Report* 각년호, 배종렬,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수은북한경제》 2008년 가을호, 등을 참조할 것.
- 6) 중국 변수 분석을 토대로 한 북한 연구의 대표적 저서로는, 김병로·신상진·장경섭·정은미·조은희,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년.

2) 양국간 교역량의 대폭 증가, 3) 북한의 對중국 경제의존도 증가 및 북한내 중국산 공산품 비율 증가(80% 이상 등), 4) 2004년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 및 자원개발 노력 제고 등이 거론되고 있다.

표 2 <북한의 대남·대중·대일 의존도 추이>

(단위 : 억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무역액	19.7	26.7	29.0	31.15	35.54	40.57	43.45	46.26	56.36	50.93
중국 (의존도)	4.88 (20.4%)	7.37 (27.6%)	7.38 (25.4%)	10.23 (32.8%)	13.85 (39.0%)	15.80 (38.9%)	16.99 (39.1%)	19.74 (42.7%)	27.87 (49.5%)	26.81 (53.0%)
일본 (의존도)	4.64 (19.4%)	4.74 (17.8%)	3.69 (12.7%)	2.65 (8.5%)	2.52 (7.1%)	1.94 (4.8%)	1.21 (2.8%)	0.93 (0.2%)	0.77 (0.1%)	0.30 (0.1%)
한국 (의존도)	4.25 (17.8%)	4.03 (15.1%)	6.41 (22.1%)	7.24 (23.1%)	6.97 (19.6%)	10.56 (26.0%)	13.49 (31.1%)	17.97 (38.9%)	18.20 (32.3%)	16.79 (33.0%)

자료 : KOTRA, 《2006년도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p.65; 전우형·김태용,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2010년, p.8, p.11, p.14, p.17.

현재 중국은 북한의 제1의 교역 상대국으로 북한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대북 투자 확대를 통해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⁷⁾. 특히 남한은 2002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나 2009년 이후 북한의 한국 의존도 급격한 감소(2011년도 21.3%) 추세로, 지속적인 대북 투자 등을 통한 남북 경협(경제협력)의 활성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따라서 다음 3장에서는 일련의 북한의 대남·대중·대일 의존도 추이에 주목하고,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 현황 및 선점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⁸⁾.

7) 북한의 대외경제전망에 관해서는, KOTRA(대한무역공사)가 매년 발표하는 <북한의 대외경제 전망>을 참조할 것. 북한의 대외무역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70%로 한층 심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1년 남북교역은 17.1억 달러(반출 800백만 달러, 반입 914백만 달러)로, 이를 포함할 경우,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한국의 비중은 21.3%에 달한다." KOTRA(2012), 《2011년 북한의 대외 무역동향》 보고서(12-018), 2012년 5월, p.16.

3. 중국의 대북 투자 동향 및 투자전략 평가

3.1 목적별 대북 투자 현황

3.1.1 자원 개발

중국은 대북 투자액의 70% 가량을 북한의 자원, 특히 광물자원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표 3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자원개발 부문> 참조). 중국의 대북 투자는 1991년 5만 달러에서 2005년 1,500만 달러로 급증하였는데 이 가운데 광물 에너지 자원 확보 목적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⁹⁾.

한편, 2006년 한국의 북한 광물자원 도입규모(표 4 <북한광물자원 관련 동향의 한중간 비교> 참조)는 5,973만 달러로 중국의 21.8% 수준(2006년 중국의 북한광물도입 규모: 2억 7,453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중국의 주요 대북 자원 투자 대상지역은 광종이 집중해 있는 단천지역¹⁰⁾, 평북(용등탄광: 무연탄), 양강도(혜산 銅鑛), 함북(무산광산) 등이다. 이는 남한이 투자할 계획 중에 있거나 조사 중인 단천지역, 평북과 중북되며, 나머지 함북북부 및 평안남북부 탄전개발지구, 황남, 평남-황북, 함북 개발지구 등은 아직까지는 남한의 단독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중국이 북한에 자원개발을 제의한 광종은 금광, 철광, 동광, 몰리브덴광, (석)탄광 등으로 광업진흥공사에서 분

8) 중국의 '대외직접투자(走出去)' 전략은 '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에 처음으로 제기된 국가정책으로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에도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대외직접투자(走出去)」 전략 출현 이전에 중국은 직접투자를 통하여 해외의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고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에 관해서는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극히 소규모에 머물러 있다.

9) "2010년도 북한의 대중국 광물자원 수출은 총 6억 8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2002년도의 광물자원 수출액 5천만 달러보다 17배나 증가한 액수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양운철, <북한의 대외무역 변화추세와 시사점>,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12년 7월호, p.12 재인용).

10) 남한도 단천지역을 지하자원개발 특구로 개발할 것을 북측에 제안한 바 있다.

석한 10대 전략광종에 포함되어 있어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¹¹⁾.

표 3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자원개발 부문>

대북 사업	사업 내용
황금채굴 및 제련	- 초원산동국대황금구분유한공사, 조선 대경추 간 MOU 체결, 북한 산농산 금광개발 합작투자논의(2004년 9월 劑南日報)
용등탄광 개발 사업	- 북한 평안북도에 위치한 용등탄광을 중국 기업인 '중국우광(五礦)'그룹이 개발 - 통화철강그룹, 엔벤텐츠공사와 컨소시엄 구성(2005년 10월 길림일보, 2006년 3월 연합통신)
양강도 해산동광 공동개발 프로젝트	- 창바이자오진광업주식유한회사 설립(약 2,680만 달러 투자) - 양강도 해산동광에서 공동개발 프로젝트 진행(2005년 1월 연합뉴스)
함경북도 무산광산의 채굴(50년) 사업	- 중국 통화(通化)강철그룹이 함경북도 무산철광 개발에 70억 위안을 투자 - 투자 대가로 무산광산의 50년 채굴권 획득
북중 해상유전 공동개발	- 남포항 인근 황해~중국 보하이 만 일대에서 북한과 해상유전 공동개발 추진(2005년 12월)
제철소 설립	- 中 당산강철그룹, 북한 김책공업원의 제철소 투자
몰리브덴광	- 중국 林寶광산개발유한공사가 201만 달러 규모 투자
갑산문락평 자철광	- 중국 서광공무유한공사가 북한개선무역회사와 협정

자료: 필자 작성

표 4 <북한광물자원 관련 동향의 한중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광물도입액	5,973만 달러(2006년)	2억 7,453만 달러(2006년)
대북 자원투자 사례	- 정춘 흑연광산 개발 - 황해남도 석회석광산 투자의향서 체결	- 주요 5개 광물 조사·개발·판매권 확보 · 텅스텐, 마그네사이트, 몰리브덴 등 - 무산, 덕현 등 주요 철광 개발권 확보 - 최대 구리광 '해산청년동광' 운영기업 인수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현황> 2006년; 대한상공회의소,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전략>, 2007년 11월.

11) 나머지 5가지 광종으로는 아연, 중석, 마그네사이트, 인, 흑연, 석탄이 속한다.

3. 1. 2 제조업 분야²⁾

중국의 제조업 분야 대북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5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제조업 부문> 참조). 2007년 11월 6일 중국 국가연초전매국(國家煙草轉賣局)은 중국의 길림연초공업유한공사(吉林煙草工業有限公司)와 북한의 연초수출입상사(煙草輸出入商社)의 합자회사인 평양백산유한책임공사(平壤白山煙草責任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 길림연초공업사는 북한내 평양백산연초사, 대동강연초사, 라선신흥연초사의 3개 담배 생산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향후 북한 내수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공사와 북한의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가 합자투자(130만 달러)하여 '아침-팬더컴퓨터'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컴퓨터 생산 중이다. 또한 중국의 지린성 방직수출입공사 및 북한 춘영 초과학주식유한회사가 공동 투자하여 슬레이트 생산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평안남도 대안군에 중국의 '요화유리집단공사'가 유리공장 건설에 4,0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중국의 '허난성 중국일타집단유한공사'는 북한의 '조선금성트랙터공장' 간 시행계약을 체결하고 트랙터 생산에 투자하였다¹³⁾. 중국의 플라스틱 일용품 제조사인 푸젠성 '푸저우시 푸산 플라스틱'은 북한 묘향산집단 산하의 선봉집단과 플라스틱 슬리퍼 수출에 합의해 북한 시장에 진출하였다¹⁴⁾. 중국의 천진디지털무역유한책임공사가 65만 달러를 투자하여 북한 대외경제협력 창구인 무역성 산하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대경추)와 합작하여 자전거 생산 공장을 설립하였다. 중국의 '지린성 대성경제무역유한회사'와 북한 직맹 산하 '문수회사'가 합자하여 '길림성 보리마금속유한공사'를 설립하여 극세아연분말 생산

12) 조명철·양문수 외,《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KIEP, 2006년; 이영훈,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Working Paper 246호, 2006년.

13) 중국 최대의 농업기계제조업체인 하남성 일타집단 대표단이 2003년 11월에 북한 금성트랙터공장을 방문하고 트랙터의 조립, 디젤엔진, 오일 펌프 등 영역에서 합작 생산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2005년 7월, p.22

14) 한겨레신문, 2004년 9월 23일자

(북한과 중국이 3:7의 비율로 출자함)을 추진한 바 있다.

표 5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제조업 부문>

투자분야	투자규모	비고
담배 생산회사	2천만 달러	- 북·중,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平壤白山煙草責任有限 公司) 합자 설립(2007. 11) - 향후 북한 내수시장 진출 가속화 모색
컴퓨터	130만 달러	-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공사·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합자 → 아침-팬더컴퓨터합영회사 설립
슬레이트	미상	- 지린성 방직수출입공사 및 춘영 초과학주식유한회사가 공동투자 - 투자규모 및 위치 미상
유리공장	4,000만 달러	- 평남 대안군에 중국의 요화유리집단공사가 유락공장 건 설 투자
트랙터	미상	- 허난성 중국일타집단유한공사, 조선금성트랙터공장 간 시행계약 체결
플라스틱 생산	1,170만 달러	- 중국 푸산 플라스틱社は 북한 선봉집단과 슬리퍼 생산 공 장 설립
자전거 생산	65만 달러	- 조선 대경추와 중국 천진디지털무역책임유한공사 공동으 로 평진자전거합영회사 설립. - 20년간 자전거 생산 독점권 부여
극세아연 분말 생산	미상	- 지린시 대성경제무역유한회사와 북한 직맹 산하문수회사가 합자하여 길림성 보리마금속유한공사 설립. - 북한과 중국이 3:7의 비율로 출자

자료: 조명철·양문수 외,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KIEP, 2006년; 이영훈,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Working Paper 246호, 2006년을 참고하여 재구성.

3.1.3 물류·유통·운수업 분야

중국의 대북 투자액 비중을 살펴보면 자원, 제조업 부문에 이어 물류·유통·운수업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표 6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물류·유통·운수업 부문> 참조). 북한과 중국은 물류센터 기능을 겸한 물자

교류시장을 신의주 및 온성에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동북지역 진흥 계획’을 확정(2007년 8월)하고, 신의주에 북한과 공동으로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⁵⁾.

표 6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물류·유통·운수업 부문>

대북 사업	사업 내용
- 백화점 운영(1)	- 저장성 동양귀하오(東陽國浩)무역유한공사, 평양제1백화점 1층만 임대하여 5년 경영권 분양(2005년 8월 동방조보)
- 백화점 운영(2)	- 중국 선양 중취그룹과 평양제1백화점 합작투자 (5,000만 위안=600만 달러) - 수입관세 5%, 소득세 5%만 부과하는 특혜 제공
- 신의주 북중 물류센터	- ‘단동임항산업원구’ 개발부지 안에 국제비즈니스단지 개발 - 중국 측이 자금과 건설자재 제공 ⇔ 북한이 건설부지와 노동력 등을 제공
- 북중 물자교류시장 (온성군) 건설	- 중국 투먼(圖們)시가 시장 건립에 필요한 건설 자재를 제공하고 투자금은 시장 공동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의 일부에서 외화로 상환하는 형태
- 북중 합영 운수 사업	- 원저우낙청성 금괘속기차복무유한공사와 북한 조선올림운수합영회사 합작(2004년 11월 연합뉴스)
- 단동 철도 운송 사업	- 홍콩국제산업발전유한공사 등 기업이 선양철도국 단동철도 국제연합운수총공사, 단동철도역 및 북한 철도성과 합자로 주식회사 설립 방안 동의(2005년 11월 홍콩강신문)

자료: 필자 작성

또한 중국 단동변경경제합작구 관리위원회는 압록강변을 따라 조성된 ‘단동임항산업원구’ 개발부지 안에 국제비즈니스단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홍콩 소재 부동산개발회사인 ‘뉴토니안 캐피털’사와 투자협약서와 국유토지 사용권 예약양도 협의서를 체결하였다(2007. 8. 15)¹⁶⁾. 온성군에는 북·중

15)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동북지구에 장비제조업기지, 국가 신형 원료에너지보장기지, 국가중요상품 양식 농축산업기지, 국가 중요기술혁신기지, 국가 생태안전보장구 등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16) ‘뉴토니안 캐피털’사는 향후(2007년 기준) 5년 동안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모두 3기 공정으로 나눠 국제비즈니스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단동경제합작구 관리위원회에 의하

공동 '물자교류시장' 건설에 합의하였다¹⁷⁾. 이외에도, 유통·운수 서비스 부문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라진항의 50년간 독점 사용권 대신에 북한 내 도로와 관광시설 및 공업단지 조성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평양 제1백화점에 5,000만 위안화를 투자하고 10년간 임차권을 확보하였다.

3.1.4 경제특구 및 SOC 인프라 구축¹⁸⁾

중국의 북한내의 경제특구 및 SOC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북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7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경제특구 및 SOC 인프라 구축 부문> 참조). 우선 북한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제특구로는 신의주 특별행정구(특구)와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들 수 있다. 다만 중국은 2009년 '창지투(창춘, 지린, 투먼)선도구'를 지정하면서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북아 국제 물류중심도시 건설에 주안을 두고 북한내 경제특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북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농산물을 기존의 다롄항 대신에 나진항을 통해 남방지역으로 운송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은 나진항 개발을 연계하여 동북지방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산물을 남방으로 운송할 새로운 해양운송망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왔다¹⁹⁾. 나아가 중국은 나진항을 이용하여 대륙에서 동해로 나가는 출해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북으로는 러시아와 몽골까지 물류망을 연계하는 청사진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면 우선 2007년 말에 오피스빌딩과 오피스텔, 호텔, 병원, 컨벤션 센터, 강변산책로, 쇼핑 센터 건설 등 1기 공정에 4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전해짐. 이를 위해 뉴토니안 캐피탈사는 한국과 일본, 미국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 들여 개발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Voice of America, 2007년 9월 10일자에서 재인용.

17) 《연합뉴스》 2007. 11. 2.

18) 이외에도 중국의 북한 수산업 분야에도 협력투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경종합화학 무역공사는 북한의 상명무역총회사와 합작투자하여 원산 앞바다의 중국어선 입항을 5년간 개방하는 대신 입어로 명목으로는 어획고의 25%를 전자제품 등 현물로 받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19) 동북지역은 해양진출로가 없어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진항 이용이 가능해지면 내륙운송보다 물류비가 저렴한 동해항로를 거쳐 중국 동부 연해지역으로의 새로운 운송망을 갖게 된다.

중국은 2009년 원자바오 총리 방북시 1호 부두 개발 및 운영권을 확보하였으며, 그 대가로 나진~훈춘 간 도로를 신설해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2008년 9월 지린~엔지 고속도로 개통으로 창춘-지린-투먼 고속도로의 전기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훈춘에는 2016년까지 100억 위안을 투자하여 동북아변경무역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²⁰⁾.

표 7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SOC 인프라 구축 및 경제특구 부문>

분야	대북 사업	사업 내용
SOC	북-중 '훈춘-라선 일체화' 사업	- 중국 훈춘(琿春)과 북한의 라선시 도로 연결 - 라선항에 공단 및 보세구역을 건설 - 훈춘 춘화분수령 통상구 건설(총투자금액 2억위안, 건설기한:2020년)
	발전소 건설	- 라오닝 격림기(格林敷)투자유한공사가 4,500만 달러 투자
	나진항 개발	- 북중, 나진항 개발 합의 (나진~원정 간 도로건설 MOU 체결: (2005.7) - 북중 나진 국제물류합영회사 설립 - 중국, 나진항 1호 부두 개발권 획득, 1호 정박지 보수 완료 (2009.11)
특구 개발	북-중, 함경북도 온성군에 호시무역역구(五市貿易區) 건설 합의	- 중국 권하(圈河) : 북한 원정리 국경무역구 - 중국 장백현(長白縣) : 북한 혜산 국경무역구 - 중국용정(龍井) : 북한 회녕 국경무역구

자료: 조명철,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교훈과 정책과제》, 2007; 이찬우, 《나진·선봉지대 투자 포럼의 결과와 전망》; 오승렬, 《북한 나진 선봉지대 현황 및 '지대'정책 전망》, 1997; 배종렬, <라선특별시 지정배경과 개발과제>, 《수은북한경제》 2010 여름호, p.5 참고로 필자 작성.

한편, 북한 무역성 중앙수출입물자교류회사는 함경북도 온성군 인민위원회

20) 원동욱, <중국의 동북 3성 개발과 남북한, 중국의 공조방안>, 2009년 동아시아 평화와 변경 협력 세미나 발표논문 참고. 2011년 훈춘시 정부는 쉐허항구의 중앙에 북-중의 새로운 통상무역지를 건설하여 중-북의 변경무역을 재차 규범화하는 등 북중무역교역 활용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경제 정보자료실 2011년 7월 11일자 재인용.

와 중국 도문시(圖們市) 정부가 체결한 호시무역구 건설 계약을 승인하였다(2007. 11)²¹⁾. 중국은 호시무역구 건설을 위해 북한에 건설자재를 선제공하며, 향후 호시무역구 운영을 통해 얻는 이윤으로 건설 자재비를 상환받도록 하는 경협 계획에 합의하였다. 또한 SOC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북·중 ‘훈춘-라선 일체화’ 사업 추진을 합의하였다²²⁾. 중국 훈춘(琿春)~북한의 라선시 도로 연결 및 라진항에 공단 및 보세구역 건설하는 사업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협의서 체결로 북한의 청진시, 라선경제무역지대(라진항),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되는 철도 운송루트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²³⁾. 또한 중국 정무원이 2009년 11월 두만강변 「창·지·투 선도구 개발사업」(표 8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발전계획> 참조)을 국가적 사업으로 공식화한 것을 계기로 2010년 1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키고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2010.1.27)했다.

표 8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발전계획>

구분	주요내용	
대상지역	창춘시, 지린성 일부, 연변조선족자치주 등 7만3000km ² (창춘~지린~투먼을 잇는 중국 동북지역 신경제벨트)	
발전 목 표	1단계 (~2010)	훈춘~투먼 고속도로 등 기반조성작업, GDP 4,890억 위안
	2단계 (~2012)	북한과 러시아의 항구 인프라 건설.중·몽 대통로 건설, GDP 7,200억 위안
	3단계 (~2015)	창지투 국제산업협력단지 조성, 몽골~일본을 잇는 운송루트 건설, GDP 1조2000억 위안
	4단계 (~2020)	경제우위 산업체계 형성, 동북지역 성장동력화, GDP 1조9000억 위안

자료: 중국국무원

21) 《길림신문》 2007. 11.(재인용)

22) 훈춘시 인민정부 웹사이트 2008. 2. 14, 《연합뉴스》2008. 2. 14일자 재인용

23) 북·중·러는 북한의 두만강과 중국 투먼(圖們), 러시아의 핫산역을 연결하는 ‘국제철도 통로’ 건설에 합의했다.(《연변일보》 2007. 12. 26)

중전의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효과적 관리운영>을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의 개선>으로 바꾸고, 투자형식과 기업관리방법 면에서 투자기업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했다²⁴⁾.

3.2 중국 대북투자 전략의 평가

3.2.1 자원 확보의 목적

해외투자를 강화하는 《중국 기업의 국제화 전략 보고 2007》(2007. 11)에 따르면, 「대외직접투자 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국내 자원 부족의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²⁵⁾. 이 중에서 대북투자와 관련한 ‘국내 자원부족의 완화’ 항목은 중국의 공업화, 특히 중화학공업의 진전에 따른 향후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부족에 대비하여 기업의 국제화 진전 및 해외 자원의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04년 2월, ‘북경조화유련(北京朝華友聯) 문화교류유한공사²⁶⁾’를 설립하여 정부 차원의 대북 진출을 총괄하고 있다. 증가 추세에 있는 중국의 대북투자의 첫 번째 특징은 북한으로부터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분야인 지하자원 개발 사업에 집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²⁷⁾. 중국의 대북투자는 주로 광물자원(70%가량)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

24) 김영윤, <단절 시대의 남북경협: 어떻게 할 것인가?: 북·중 경제 밀착에 따른 라진·선봉지역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원 학술회의(2010.12.7) 발제문

25) 대외직접투자 전략의 수단으로서, 우선적으로 ① 국내 자원 부족의 완화를 들고 있으며, 이 밖에도 ② 과잉 생산 능력의 해소 및 산업의 고도화, ③ 무역마찰의 완화, ④ 대외(무)수지 불균형의 시정, ⑤ 경쟁력 있는 다국적 기업의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중국 기업의 국제화 전략 보고 2007 블루북》, 2007.11(中國企業國際化戰略報告課題專家委員會, 《中國企業國際化戰略報告 2007藍皮書》, 2007.11)

26) 이는 북한관광총국의 위임을 받아 민·관·영을 통틀어 유일하게 자문 권한을 인정받은 기관이다.

27) 북한에는 중석, 몰리브덴 등 10대 광물 가운데 7종이 매장되어 있으며, 매장량 가치는 2,287조 원 규모로 세계 10위권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와 연계는 불분명하나, 북한의 무연탄 등 광물성 연료가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6.0%에서 2011년에는 59.4%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KOTRA(2012), p.12

고 있으나²⁸⁾, 관련 합의서 및 협정 체결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실제 사업 추진은 미비한 상태이다²⁹⁾.

3.2.2 북한 내수 선점의 목적

중국은 북한 내 담배 생산회사, 제조업 진출 등을 통해 향후 북한 내수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대북 투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중 경협 확대는 공장 가동률과 성장 잠재력 제고, 설비 현대화와 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경제난 해소와 경제 희생의 수혈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³⁰⁾. 또한 중국의 대북투자는 경영권 확보보다는 원자재 조달과 북한 시장 개척을 염두에 둔 보상무역과 합작투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³¹⁾. 중국 정부의 대북 지원액은 2.5억 달러(1997~2004년)에 불과하나, 향후 중국은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대북 투자 실익과 연계한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을 확대하는 전략을 수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³²⁾. 또한 투자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상정하여 기업 차원의 대북 투자 지원을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28) 산은경제연구소는 “2002년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액 중 70%를 넘는 1300만 달러 어치가 철광·동광·물리브덴 등 광산에 투자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준, <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 동향 분석>, 《동북아 경제이슈》, 2007년 3월호.

29) 미국의 닉슨센터(Nixon Center)의 중국 전문가인 드류 톰슨(Drew Thompson) 연구원은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기초한 양자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부진한 개혁과 개방의 속도가 중국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중국 기업의 대북 광업 투자가 세계 광물 가격의 변동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http://www.rfa.org/> 2011년 3월 16일자.

30) 북중 무역이 1% 증가 시 북한의 전체 교역은 0.48%, 경제성장률은 0.11%, 국민소득은 0.20%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박순찬, <북한과 중국간 무역이 북한의 경제 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10.

31) 이는 보상무역이 투자 설비만큼 생산 제품을 보상받으므로 투자 리스크도 적고 상환 주기도 짧아 상호 결제 청산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32) 대표적인 정부차원의 대북투자(지원)로는 중국정부가 북한의 남포시에 400만 달러정도를 무상 투자하여 중국의 설비와 기술, 기술자들의 지원 하에 건설된 유리공장 설립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북한에 국내 개발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북한의 내수시장 선점 효과를 얻는 방식으로 대북투자 문제를 접근하는 새로운 양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수시장 선점을 위한 대북투자 부문(SOC, 유통·운수, 수산업, 제조업, 특구개발 등)의 추진 현황은 극히 미진한 상태이다.

3.2.3 對동북아 외교·안보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제고

중국의 대북투자 증가는 대북 지원 및 북한의 대중 의존도 제고를 통한 중국의 對미·對한반도·對한국 영향력의 제고 및 전략적 계산으로 평가된다. 북한 또한 다차원적인 외교적 고립 타개 노력 및 선별적 경제회생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는 북한정권의 국제적 고립 및 경제난 해소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 증대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북·중 간의 '교류·협력'이 증대의 근본적인 이유는 자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대외적 환경의 조성으로 보인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대북 투자 정책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일고찰이었다. 중국의 대북투자 모델은 중국정부에 의한 중앙집권화적 정책과정이라기 보다는 정부外 행위자가 주도하는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非중앙집권화(decentralization)의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³³⁾. 물론 중국공산당지도부가 최종적인 (투자)결정권을 스스로 넘겨주지는 않았지만, 광범위한 개혁·개방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권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엿보인다. 본 논문의 분석을 통해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과정에서 한국 정부 혹은 기업 또는 NGO·NPO 단체들이 추

33) 대북투자 정책에 있어서 중국이 완전히 중앙집권화 투자에서 벗어나 완전한 비중앙집권화 대북투자 형태로 전환되었다고 단언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중국 정부주도이기는 하나 중국기업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 정부 또한 대북 진출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다 더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해야할 모델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중국의 대북 투자 동향 분석을 통한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경협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직접 (북한 개발)시장에 개입하여(물론, 개성공단사업의 예를 보면 북한 내의 경제특구 개발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대북투자 기업을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 분석을 통해 얻은 경험적 결론으로는, 비록 북한의 투자 환경이 아직까지는 타국가에 비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에 분명하나, 투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채산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법칙에 따라 투자결정과 이윤수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 확보 및 자원 선점 차원에서 남한의 북한 자원개발 경험 확대 및 투자가 요구된다³⁴⁾. 이명박 정부가 10대 중점 과제 중의 하나로 여겼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 자원 외교'의 대상국으로서의 대북 투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³⁵⁾. 북한의 인력자원과 지하자원, 관광자원 등 부존 자원 활용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북한 경제 회생에 중점을 두어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지하자원 등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실행 단계에 들어설 남북한 간의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은 단순한 바터형식의 교역(구상무역)에서 벗어나 폭넓은 남북 간의 산업협력으로 연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³⁶⁾. 특히 북한이 석탄과 광물 등 지하자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철저한 관리 통제를 요구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 남한도 대응 여하에 따라 투자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34)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자원 외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전략 부채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35) 특히 에너지 자원의 자주 공급율(자급율)이 4.2%에 불과한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에너지 원 확보를 위해 북한을 대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쟁적 상황 하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36) 이석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대북 경공업 원자재 지원>, 《e-KIET 산업정보》, 2007.7.3.

따라, 북한 지하자원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재점검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급히 북한광산개발정책을 마련하여, 남북 당국 간 회담 및 남북자원협력분과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해 관련 법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과 중국 기업들이 추진하는 도로·철도, 에너지 등의 SOC 인프라 구축 사업에 공동 참가하여 남·북·중이 공동 노력(협력구상)하여 부존자원개발의 협력가능 방식을 추진하거나 동북아시아 협력(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한 SOC 인프라 구축과 물류유통망 확충은 북한의 경제난과 외화난 해결은 물론 남북경협 활성화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 부분의 남·북·중 공동 사업 추진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³⁷⁾. 가공수출형 투자의 경우, 경제특구(공단)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SOC 인프라, 물류, 노동력, 북한 내의 가용 원부자재 조달 등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한중 공동투자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협력 전략이 기존의 남한 우선 원칙에 바탕을 둔 것으로 바라보는 접근법에서 탈피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을 배제한 북한의 북·중, 북·러 우선 경협 전략을 차단하면서, 남한의 사업 진출 방안과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중·러 접경지역의 허브항으로 부상할 나진항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과 함께, 나진항 컨테이너 부두 건설 등에 관한 경제적(사업) 타당성 및 기술적 문제 등에 관해 검토할 수 있다.

넷째, 중국의 대북 투자 확대에 의한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 일변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국내외 기업과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기존 남북 경협 사업의 이행 및 新경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³⁸⁾. 특히 최근 북한은 높은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중국 이외에 타국가와의 협약을 체결하거나 외자를 유치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 다변화 전략도 엿보인다³⁹⁾. 특히 김

37) 하나의 예로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SK네트웍스와 공동으로 중국 연·아연광을 개발키로 하고, 중국 형양암토공정감찰원과 각각 지분 33.3%씩을 갖는 한중 합작회사(‘호남중한광업유한공사’)를 설립(2006. 4)하고 광물개발사업 분야에서 한중간 협력하고 있다.

38)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제3국들의 대북 진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본격화 될 경우, 남한(한국)의 경협 주도권 약화와 경협적인 상황이 우려되며, 한국의 경협 실익이 격감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은 체제하에서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⁴⁰⁾, 한국은 기존 저임금·저비용 공단 모델의 경험 추진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방식이나 분야를 개발하는 新경험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⁴¹⁾. 중국의 대북투자 현황에 관해서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홍보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한국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⁴²⁾. 중국의 투자 선점 및 경제 의존도 심화·예속화에서 탈피하기 위한 북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경제협력 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남북 경험에 대한 정경분리 원칙을 수행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방안에 관해 점검해 보기로 하자.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한·중·일 경제가 점점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지역경제권이라고 불릴만한 경제협력 공간이 형성될 가능성은 다소 낮은 상황이다. 단지 직접투자의 확대 등 무역관계의 발전 궤도에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내 합의된 경제통합 구상 또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이미지가 부재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한·중·일 FTA 혹은 동북아 경제협력체로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서는 역내의 대북투자 정책협력 등 구체적

39) 예를 들어, 북한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12년 5월 8일 양국 간 언론 및 정보 통신기술 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자료원: Diplonews 및 Jakarta Post (KOTRA 북한경제 정보자료실 2011년 7월 11일자 재인용)

40)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인 '6.28 정책'을 공식 도입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기본 원칙인 계획경제와 배급제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열린북한방송 (<http://www.nkradio.org/>) 및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2012년 8월 9일자.

41) 예를 들어, 남북경협에 대표적 사례인 개성공단에 모델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김영근(2009), <북한 개발 모델의 성공조건에 관한 시론: 개성공단의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0권 4호, 세계평화통일학회, pp.75-104. 또한 향후 국제제도(6자회담) 협력을 통한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규모 대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세계 주요 원조국의 사례 분석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전제 조건 및 재원 조달 규모를 비롯해, 북한 경제재건(개발)에 관한 선행적 분석으로는, 김영근(2008), <북한경제재건을 위한 국제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 추정>, 《국제·지역연구》 제17권 4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pp.1-31. 등을 참조할 것.

42) 예를 들어, "(북한)자원개발 지원센터"(가칭) 등을 설립하여 대북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 실천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그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 김병로(2008), <북한-중국 간 사회네트워크 분석>, 김병로 외,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김병로·신상진·장경섭·정은미·조은희(2008),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김영근(2008), <북한경제재건을 위한 국제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 추정>,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4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pp.1-31.
- 김영근(2009), <북한 개발 모델의 성공조건에 관한 시론: 개성공단장의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0권 4호, 세계평화통일학회, pp.75-10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2005),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2005년 7월호.
- 대한상공회의소(2007),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전략>, 2007년 11월.
- 박순찬(2005), 《북한과 중국간 무역이 북한의 경제 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10.
- 배종렬(2008),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수은북한경제》 2008년 가을호.
- 신상진(2008), <북·중 정치외교관계: 실리에 기초한 전략적 협력관계>, 김병로 외,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양운철(2012), <북한의 대외무역 변화추세와 시사점>, 《정세와 정책》세종연구소, 2012년 7월호.
- 이석기(2007),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대북 경공업 원자재 지원>, 《e-KIET 산업정보》, 2007.7.3.
- 이영훈(2006),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Working Paper 246호.
- 이장규·이인구·여지나·조현준(2006),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경섭(2008), <북한 및 중국의 산업구조와 경제관계>, 김병로 외,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전우형·김태용(2010),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 정은미(2008), <북한-중국 간 경제네트워크의 구조와 변동>, 김병로 외,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정의준(2007),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 분석>, 《동북아 경제이슈》 2007년 3월호.
- 조명철·양문수 외(2006),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KIEP.
- 조명철 외(2005),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KIEP.
- 조명철 편(2005), 《북핵문제 해결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KIEP.
- 조명철 편(2001),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KIEP.
- 조은희(2008),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교류의 연결망 분석>, 김병로 외,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중국사회과학연구원(中國企業國際化戰略報告課題專家委員會)(2007), 《중국 기업의 국제화 전략 보고 2007 블루북(中國企業國際化戰略報告—2007藍皮書)》, 2007.11.
- 중국상무부, “2006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자료(2012. 7월 검색) 참조
- 최수영(20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 홍익표(2006), <북·중 변경무역의 실태분석 및 향후 전망>, 《통일정책연구》 2006년 12월호.
- KIEP(2007), <2008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 08-08호, 2007년(2월 26일).
- KOTRA(2006), 《2006년도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 KOTRA(2012), 《2011년 북한의 대외 무역동향》(12-018)
- KOTRA(2006), 《북·중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 UNCTAD(2007), *World Investment Report*. 각년호(2008-2011)
 《2006년도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연변일보》
 《연합뉴스》
 《중국통계연감》,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중국상무연감》 각년호.
 《한겨레신문》
 《UN무역개발협회의회(UNCTAD) 보고서》

Kenneth G. Lieberthal(1992), "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 in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tics,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30.

< ABSTRACT >

The economic cooperation programs that can contribute to achieving peace in Northeast Asia may consist of constructing infrastructures (SOC) such as roads, bridges, ports, or communications, as well as sharing energy sources. However, North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status is the major obstacle fo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n, with cost-benefit problems are repelling private capital and preventing cooperation to progress harmoniously. Nevertheless, it is still useful to do a case study on the fact that China is actively investing in North Korea. China, Nor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investor, has a huge economic influence on North Korea, and it is alarming that North Korea'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can grow if China increases its investment in North Korea and strengthens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quire into Northeast Asia's economic cooperation, focusing on the investment policy of China, which occupies an important role as the Nor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Key words: Investment & Development, Economic Cooperatio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East Asia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7. 11.	2012. 8. 3.	2012. 8. 13.	2012. 8. 21.	2012. 8. 31.